모든 습에 끄달린다면 그 고덩어리 속에서 헤어날 수 없다

☞ 19면에서 계속

땅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심어져 있는 것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평발이라고 했던 겁니다. "내 발 아님이 없고 내 도량 아님이 없어서 평발로, 한 발로 디뎠느니라." 그래서 평발이거든요. 벌레, 곤충의 발 하나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생각하면 그분만이 평발이 아니라 일체의 발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부처님 발과 둘이 아닌 까닭에 한 발이요 평발이라, 그 평발로 디뎠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행하는 법이 독불장군이 없이 같이 행하기 때문에 사장은 직원으로 인해서 직원은 사장으로 인해서, 회장은 사장으로 인해서 직원들로 인해서 이렇게 같이 같이 주고받으며 먹고 사는 조화된 세상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한데 합쳐서 세상이라고 한 것이고 이 우주와 더불어 같이 말할 때는 대천세계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삼천대천세계는 어떤 것인가. 과거에도 그대로 대천이요 현실에도 대천이요 미래에도 대천이니 그 대천은 삼천대천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책에 있는 거와 똑같이는 얘기 안 하지마는 뜻은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푸르른 청산이 있는가 하면 저 물은 끊임없이 흘러 돌고 있고, 끊임없이 봄이 오면 꽃이 피고 끊임없이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면서 사계절이 돌고 돕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수없이 나오는 거를 수없이 다스려서 거기 놓는다면, 잘되는 거는 감사하게 놓고 안되는 것은 '거기에서만이 걸리지 않고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더불어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그대로 생활과학이요, 바로 참선이요 좌선입니다. 우리 공부는 끊임없는 진리를 탐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요, 나를 깨닫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둘러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처럼 기술이 요요합니까? 남의 나라처럼 마음이 그렇게 깨어서 삽니까? 정신세계로 진출해서 갑니까? 물질을 좇는 데만 여념이 없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분수에 맞춰서 살 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세계는 언제 돌아다보겠습니까. 미래의 세계에서 본다면 우리 지금 현실 세계가 과거가 되고, 과거의 세계에서 본다면 정신세계가 미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세계와 정신세계가 둘이 아니요 또는 과거와 현실이 둘이 아닌 까닭에 우린 마음으로써 항상 그렇게 다스려 가면서 모든 거를 놓는다면, 크면 큰 대로 다스리고 작으면 작은 대로 다스려서 놓는다면 화목이 오지 않을 수 없고 조화를 이루어서 끝 간 데 없이 세계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신과학으로 이탈 없이 가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정신세계, 무심 도리의 도를 알 수 있게 해야 하죠. 무심 도리를 배워야만 물질세계에 바로 내놓을 수 있는 영력(靈力)이 생겨서 과학적인 문제를 첨단으로, 정신세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남들과 같이 눈 달리고 귀 달리고 코 달리고 입 달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보다도 더 부지런하고 머리가 영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따라가지 못하느냐 하면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왜 보고 들은 게 없느냐. 예를 들어서 남들이 자장면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자장면을 만드는 것도 못 봤고 먹어 보지도 못했고 구경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네들은 먼저 자장면을 연구해서 만들었고 먹어 봤습니다.

내가 미국 등지로 다니면서 들어 보면 그 박사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미국인 박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이 말씀하듯 내 생산처가 여기 있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쥘 수도 없지만 내 생산처가 무궁무진하게 내 깊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나는 증명하고 갑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그 핵심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불어넣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남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첨단의 무심 도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물론 말, 언어는 다르지마는 그 뜻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나 가톨릭교에 나가지 않는답니다. 지금 가톨릭교나 기독교의 성당이나 교회가 많이 비었습니다. 난 그걸 눈으로 보고 다녔으니까요. 거기 가서 사는 한국 사람들하고 흑인들이 많이 나가요. 그런데 그걸로써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텅텅 비어 있는 성당이나 교회가 많아요.

그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 집에 주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가면 만날, 즉 말하자면 빈집 단속하라고 하는 거밖에는 없으니까 안 나가죠. 빈집, 내 마음의 빈집! 여러분도 비었다면, 주인이 없다면 "네 마음이 그렇게 한마음으로 한 그릇이 되지 못했다면 내가 한마음으로 너의 마음속에 같이 밝게 할 수가 없다. 한마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임제스님이 "네가 주장자가 없다면 내 주장자를 주지 못할 것이고 네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줄 것이니라." 하셨듯이 말입니다. 그것은 '네가 주장자가 없다면 빈집이 되어 털구멍을 통하고 콧구멍을 통하고 눈구멍을 통해서 바로 세균성, 영계성, 귀신들, 도깨비 모두가 들랑날랑거려서 녹이 슬고 거미줄이 생기고 곰팡이가 슬고 그래서 그 집은 그냥 순간 망가질 수 있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르쳐 드릴 때 여러분이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주인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생산처가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빈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신이 바깥에 있는 줄 알고, 잘되게 해 달라고 바깥으로 관세음보살 찾고 문수보살 찾고 보현보살 찾고, 칠성부처 찾고 지장보살 찾고 약사보살 찾고 아무리 해 봐도 그건 허탕이에요. 공덕이 될 수가 없어요. 한마음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공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생산처인 줄 알고 일체가 평등공법임을 아시고 칠보활궁공법을 아시고 수레공법을 아신다면, 사무 사유 팔수레공법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한마음이 돼서 저 나무 이파리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저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버리지 않고, 또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삼십이응신으로서, 천백억 화신으로서, 법신으로서 모두가 화해서 응해 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꽃 한 송이가 원을 해도 응해 주시고 곤충 하나가 원을 해도 응해 주신다 이거예요.

응해 주신다는 뜻은 한마음이 되어 주신다 이거지요. 찰나에 한마음으로 들어 주시고 찰나에 한마음이 너 나로 분리돼서 또 한 찰나에 나시고, 이게 달라 하면 이게 달라는 대로 저게 달라 하면 저게 달라는 대로 응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부처라고 이름할 게 없는 것이 바로 부처니라. 내가 어떤 것이 되어서 한마음이 돼 줄 때에 나라고 하고, 내가 해 주었다고 하며, 부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부처라는 것은 이름 없는 것이 부처이고 그 이름 없이 행하는 것이 바로 법성신이니라.

>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수억겁을 거쳐서 쫓고 쫓기면서 진화돼서
> 인간까지 올라온 것이니, 이 몸속에 있는, 내 인과에 따라서 만난
> 인연들, 중생들을 내 한마음으로 뭉쳐서
> 모두 인간으로 화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여러분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수억겁을 거쳐서 쫓고 쫓기면서 진화돼서 인간까지 올라온 것이니까 이 몸속에 있는, 내 인과에 따라서 만난 인연들, 중생들을 내 한마음으로 뭉쳐서 모두 인간으로 화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독사의 모습이라면 그 독사의 모습을 면치 못하고 끝 간 데 없이 악독한 그 모습을 가지고서 행해야 되고, 그 모습을 벗을 길이 없어서 오백 생을 지내야만이 또 한 번 인도환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곤충이나 짐승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인간으로 살았으면 인간의 습이 있을 거고 곤충으로 살았으면 곤충의 습이 있을 거고 독사로 살았으면 독사의 습이 있을 거고 소로 살았다면 소의 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습을, 모든 걸 놔라 이겁니다. 습에 끄달린다면, 관습에 끄달린다면 절대로 그 고덩어리 속에서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벌써 그건 내 몸으로부터 우리 가정, 우리 사회, 국가, 세계, 우주에 이르기까지 다 손해입니다.

젊은 분들은 임신을 했더라도 한생각으로 그렇게 마음을 갖는다면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받아서 그 아기도 잘 자랄 것이고, 그저 싸움이나 하고 악의적으로 남을 원망이나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아기도 따라서 그런 의식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어머니의 교양이 얼마나 태아의 이미지로 부착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속에 그 많은 생명의 의식들이 여러분의 마음 따라서 움죽거리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기가 막힐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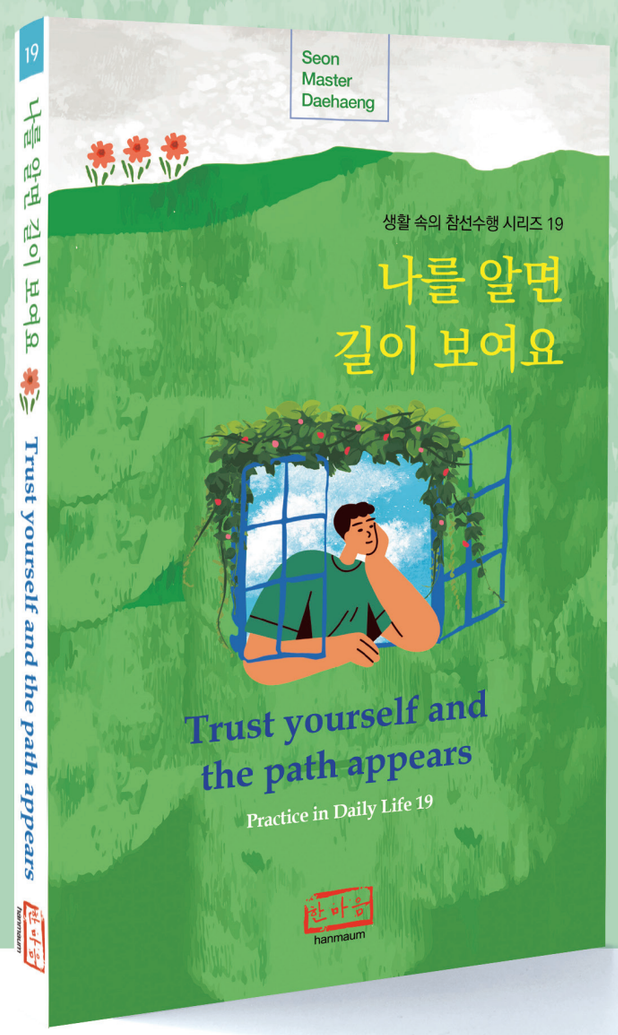
그러니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게 팥죽 솥이라면 주걱으로 익으라고 젓는 놈은 바로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좋고 나쁜 걸 아는 고 마음, 고놈입니다. 그런데 팥죽 솥에서 불끈불끈 불끈 그냥 수없이 일어나는 그 팥죽 방울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그냥 아주 좋아하고, 또 "너 죽일 년이래.", "죽일 놈이래." 이러고, 회사에서도 '너는 벌써 이렇다더라, 윗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러면 그냥 화가 불쑥 나고 기가 이만큼 올라서 죽일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되거든요.

고렇게 만든다고요. 듣는 대로 만들고 보는 대로 만들고 행하는 대로 만들고 이러니까, 그 마음이 팥죽 솥에서 팥죽 방울 일어나듯 불룽불룽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저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서 일어나고, 지나가면 또 일어나고 지나가면 또 일어나면서 기쁜 마음은 그저 잠시 잠깐이고 삶의 보람 있는 고 순간은 바람결같이 스쳐 갈 뿐이죠. 그러니 24시간 동안에 즐거운 마음이 몇 초나 들까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7월 14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